

지성들이 필독을 원하는 우리시대 공학의 중심

공학이 필요한 시간

이인식 외 19인 지음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유전자공학 등 다양한 용어와 기술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닿아 있다. 더욱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국정 목표로 설정한 이후 미래를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디지털화, 지능화, 정보경제'. 이 세 요소를 매개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이른바 창작이란 기존의 없던 직업을 만드는 일이다. 창작은 상상력과 기술이 결합돼야 이루어진다.

우리 시대 공학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발견됐다. 미래기술에 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해온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과 공학기술의 대중화에 힘써온 한국공한협원이 공학기술 필독서 45권을 선정, 서평집 '공학이 필요한 시간'을 펴낸 것.

필진은 이인식 소장 외 모두 19명이 참여했으며 도서 선정 기준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했다. 인문, 사회, 예술 분야 도서뿐 아니라 공학도들에게 필요한 소양을 제공하거나 공학의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왜 공학이 필요한가. 공학기술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공학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미래고용보고서'에 15개국 9개 산업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300만 명의 종업원 중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야 함을 보여준다."

책은 모두 3부 7장으로 구성됐다. 1부 '공학기술,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공학기술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공학기술 발전의 전환점이 될 만한 혁명적 발상을 제안한 문제작들을 다룬다. 세기별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과 기술발전의 역사를 설명한 '테크놀러지의 결자들'을 비롯해 공학기술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책들도 소개한다.

또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기념비적인 역작들, 예컨대 인류가 100세 이후 불멸을 꿈꾸게 된 '냉동인간' 등도 만날 수 있다.

2부 '기계와 인간의 공진화'에서는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으로 대표되는 기계지능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기계지능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에 초점을 둔 '사람과 컴퓨터', '고델, 에셔, 바흐', '생각하는 기계'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에서는 뇌와 마음의 문제에 초점을 둔 책들이 나온다. '뇌의 미래', '마음의 미래', '인공생명', '마음의 아이들'이 눈에 띈다. 특히 트랜스휴먼은 '현존 인간을 근본적으로 넘어서서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는 애매하게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3부는 미래의 공학에 관한 책들이 엄선돼 있다. '공학기술의 미래를 말하다'는 제목에서 보듯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권한을 준다. '메트릭스로 철학하기',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블록체인 혁명', '파괴적 혁신' 등에 대한 서평이 담겨 있다. <다산사이언스·1만8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 “말인가?” 답 “제트” ... 유머는 삶의 무늬이자 인격

유머니즘

김찬호 지음

어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과 자동차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다. “말인가?” 당황한 선생님은 뭐라 답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다시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선생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트...”

사회학자 김찬호의 새책 '유머니즘-웃음과 공간의 마음 사회학'에서 이 대목을 읽다 '피식' 웃고 말았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유머 가운데 가장 단순한 '동음이의어'에 의한 교란의 사례로 들었다.

'모멸감-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생애의 발견-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가'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을 분석해 온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의 이번 책은 유머의 메커니즘에 본질적으로 접근해 '웃음'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공유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성찰한다.

저자는 “유머는 대화에서 양념처럼 첨가되는 조미료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인간성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바탕이 되고,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유머는 스킵이 아니다. 유머는 일정한 세계를 공유하며 의미의 변주를 즐기는 정신이며 자기를 상

대화하는 용기, 주어진 상황을 낯설게 바라보는 관점, 타인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그 움직임을 순간 포착하는 직관을 필요로 한다.

유머는 삶의 무늬이자 인격으로 자신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 인생 전체의 이력이 깃들여 있다. 또 ‘뻔 있는 농담’처럼 유머는 사태의 본질을 통찰하는 경우도 많다.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됐다. 1부 ‘나는 웃는다, 고로 존재한다’에서는 웃음의 기원과 효능 등을 살펴본다. 2부 ‘유머의 문법’에서는 유머의 개념과 역사와 함께 긴장과 욕구의 해소, 우쭐하는 기분(우월 이론), 난센스의 패각(불일치의 반전 이론) 등의 글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3부 ‘유머 감각의 여섯 기둥’에서는 ‘포악-자기만의 독특한 관점’, ‘표현-의미를

변주하는 언어의 연금술’, ‘연기-가상의 시공간을 빚어내는 상상력’, ‘동심-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의 감각’, ‘낙살-영동한 것을 감행하는 배짱’, ‘공감-사소한 농담에도 화답하는 여유’ 등을 소개한다. 그밖에 4부와 5부에서는 풍자와 전복, 농담이 희롱이 될 때, 억지웃음의 비굴함과 괴로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저자는 “유머는 단기간에 습득하거나 높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역량이지만 유연하면서도 예리한 지성, 유쾌하면서 상대를 섬세하게 배려하는 감성이 어우러지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에는 움베르토 에코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문정희의 ‘늙은 코미디언’, 이정록의 ‘청양행 버스기사와 할머니의 독한 농담’, 알랭 드 보통의 ‘불안’, 빅토르 프랑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등 유머와 관련된 다양한 글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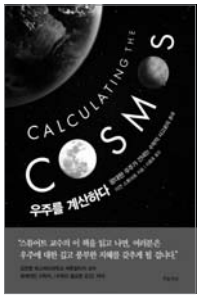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미래는 와 있다=가상현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통찰과 분석을 담았다. 지은이 피터 루빈은 가상현실이 다른 기술들이 훼손했던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가상현실이 이제야 겨우 첫걸음을 내디딘 이 시점에, 그 가능성을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드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열리는지도 흥미롭게 보여준다. <더난출판사·1만7000원>

▲그리하여 흘러 쓴 것들=‘아마도 아프리카’, ‘예나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등을 펴낸 이제니의 세번째 시집이다. 61편이 담긴 이 시집에서 시인은 문장들 사이사이로 문득 끼어드는 ‘어떤 목소리’로, 미처 다 말할 수 없는 무엇을, 지나간 자리를, 남겨진 자리를 환기시킨다. 그 모든 목소리들은 한 개인의 목소리이자 그 개인이 지극히 겪어오고 건너온 모든 사람과 생의 목소리의 총합이기도 하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내일은 내일에게=어른이 된 지은이 김선영 작가가 십대의 ‘나’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특별히 자신의 십대 모습을 소환해 써내려간 작품이다. 살아오면서 품었던 이야기를 오랫동안 사유해서 토해낸 탄탄한 문장과 호소력으로 청소년 독자에 대한 애정을 담아 선보인다. 지은이는 “‘연두’의 상황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나의 십대 시절을 소환했고 몸이 그때의 정서를 기억해낸 증상이라는 것을 나



중요야 알았다”고 말한다.

<특별한서재·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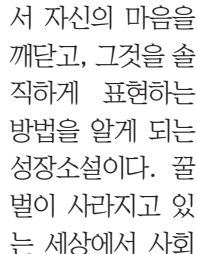
▲우주를 계산하다=영국왕립학회가 주는 ‘마이어 페르데이상’, 미국과학진흥회 공로상을 받은 워릭대학교 명예 교수 이언 스튜어트가 우주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을 수학으로 밝혀내는 책을 냈다. 수학은 태양과 달, 행성, 항성 등 수많은 우주 천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그 근본 원리를 증명해내는 데 있어서의 핵심 학문이다. 지은이는 책을 통해 천문학과 물리학, 우주론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다채롭게 풀어낸다. <흐름출판·2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별난 탐정과 학교괴담사건=무서운 학교 괴담에 맞서는 ‘별난 탐정단’의 대활약기가 펼쳐진다. 흔들리는 변기 수조 뚜껑, 어디서 보든 눈이 마주치는 섬뜩한 석고 마스크, 몇몇 아이들에게만 들리는 이상한 소리, 체육 창고에 떠다니는 손바닥, 오후 4시만 되면 나타나는 운동장 귀신 등 학교에 퍼진 괴담들로 아이들은 겁을 잔뜩 먹는다. 무서운 학교 괴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별난 탐정단과 마루, 한나, 민석이가 모여 별난 탐정단을 결성한다. <청어람주니어·1만1000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바닷가에 외따로 서 있는 등대를 지키는 씩씩한 소녀 릴리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아빠는 노란 잠수정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 그곳 생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아끼고 아끼던 비밀이었던 보지 못한 거대한 외톨이 고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산하·1만1000원>

▲착한 꿀벌은 집어치워=열두 살 소년이 꿀벌 살리기 가족 여행을 함께하면



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성장소설이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운동가인 엄마는 사라지는 꿀벌이 주는 경고를 아들 율프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접하게 되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캐나다 횡단 여행을 계획한다. <책과콩나무·1만3000원>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상 수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대한민국 소비자보호원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소비자보호원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소비자보호원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소비자보호원 최우수상 수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아온, 실크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